

「있다」의 소유 구문에 대한 소고

신선경

1. 들어가기

「있다」 동사는 대상격과 처소격의 두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용언으로 「존재」 의미를 기본 의미로 갖는다. 존재의 의미는 다시 ‘신이 존재한다’와 같은 「존재성」 자체에 관하여 언급하는 존재론적 존재 의미¹⁾와 ‘봄꽃에는 개나리 진달래 철쭉 따위가 있다’에서와 같이 「A의 유형을 이루는 것으로는 B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해석되어 어떤 대상의 유형론적 속성을 나타내는 유형론적 존재 의미, 그리고 「A가 B에 위치한다.」와 같은 소재(location)의 의미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있다」의 존재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를 외에도 아래의 (1)의 예문에서와 같이 어떤 대상과 그것의 소유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소유」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A가 B에 있다.」라는 「소재」의 구문과 동일한 기저를 갖는 구문으로 이들 명사구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각각 「소재」와 「소유」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표면 구조로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²⁾.

1) 「절대 존재」의 「있다」 구문에서는 처소격의 의미역을 갖는 명사구는 논항이 되지 못한다.

2) 박양규(1975), 신선경(1996) 참조.

- (1) a. 철수에게 돈이 있다
 b. 영희에게 동생이 있다.
 c. 이 책상에 서랍이 있다.
 d. 그의 말에 일관성이 있다.

소유의 '있다' 구문은 여러 면에서 「소재」의 '있다'와 구문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³⁾ Jackendoff(1983 : 191-3)는 'y가 x를 소유 한다(y has /possesses x)'와 같은 문장은 소재의 의미를 갖는 'x가 y에 있다(x is at y)'라는 문장과 동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과연 '있다'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 소유의 의미를 존재, 특히 「소재」의 의미와 굳이 분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고석주(1996)에서도 '있다'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있다' 자체에 소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구문에 나타나는 두 NP 사이의 관계에서 추론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있다' 구문의 의미가 명사구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있다'의 통보론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존재」의 의미를 기본 의미로 갖는 '있다'는 다른 용언들에 비해 동사 자체가 가지는 의미 즉 정보량이 적은(informally light) 동사이다.⁴⁾ 존재 구문이 나타내는 「존재」의 의미는 동사 자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동사가 선택하는 처격 논항에 의해서 더욱 잘 표현된다. 어떤 대상의 처소가 명시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존재

3) Kimball(1973)에서 지적된 대로 영어의 경우도 소재의 의미와 소유의 의미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즉 영어에서 "The cat is on the table."과 "The table has a cat on it."이라는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불어에서도 Le livre est à Jean.라는 문장은 축자적으로는 '책에게 그 책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실제적 의미는 '책이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 존재 동사가 정보량이 적은 동사라는 언급은 Hartvigson & Jakobsen(1974), Hoekstra & Mulder(1990), Levin & Rappaport(1995) 등을 참조. Hoekstra & Mulder(1990)에서는 영어의 존재동사의 처격 구문을 계사 구문(copular construction)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가 전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있다’의 소유 의미는 이러한 ‘있다’ 용언의 정보적 취약성(*informational lightness*)과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명사구들의 의미 해석 상의 비중 등 ‘있다’ 구문의 특성 때문에 파생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있다’ 구문 특히 소유의 ‘있다’ 구문에서 명사구들의 의미와 그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는 문장의 의미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의 차이는 이들 명사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차질과 의미 관계 특히 이들 명사구 사이의 귀속적 긴밀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 구문은 다른 존재 구문들과는 달리 소유주 명사구(이들은 기저구 조에서 치격으로 실현된다)와 소유 대상 명사구 사이의 귀속적 긴밀성을 전제로 한다. 소유 구문의 두 명사구 사이에 존재하는 귀속적 긴밀성의 정도 차이는 같은 소유 구문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구문 간의 의미적 차이를 유발하며 문장 내의 명사구들의 형태 통사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 간의 구별은 ‘화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에 관하여 말하느냐’ 하는 ‘화자의 통보론적 초점’의 차이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 구문이 한 대상의 ‘존재 여부’나 ‘존재 방식’ 또는 ‘존재의 위치’ 따위에 관한 문장으로, 존재 대상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사실이나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반하여 소유 구문은 한 대상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 대상의 존재 상태를 경험하는 또 다른 대상, 즉 존재 대상과 소유나 귀속의 관계를 맺는 소유주에 관한 정보로 그 초점을 옮겨 그 경험의 주체인 소유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다⁵⁾. 그러므로 ‘있다’ 구문의 소유 의미로의 해석은 통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더 나아가서는 통보론적인 토대 위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박양규(1972)는 이와 관련하여 ‘소유란 대상의 존재에 대한 경험주로서의 인식’이라고 말하였다.

2. 「소유」 구문의 구조와 의미

2.1. 「소유」 구문은 「소재」 구문과는 구별되는 몇가지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⁶⁾. 먼저, 소유 구문에서는 처격 명사구, 즉 소유주 명사구가 주격 조사를 선택하여 문두에 실현됨으로써 주격 중출문을 이룬다는 것이다.

- (2) a. 책상에 책이 있다.
b. *책상이 책이 있다.
- (3) a. 철수에게 책이 있다.
b. 철수가 책이 있다.

소재 구문은 (2b)와 같이 처소의 명사구가 주격으로 나타날 수 없는 반면, (3)의 소유 구문에서는 (3b)와 같은 주격으로의 실현이 자연스럽다. 소유 구문에서의 이러한 주격 중출 현상은 ‘있다’ 구문의 비대격성과 비대격 구문에서의 처격 도치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문두에 위치하는 처격 명사구는 그 표면구조에서의 위치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소재」 구문에서의 처격 명사구의 통사적 위치나 자격이 소유 구문에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선경(1996)에 따르면 「있다」 구문의 기저구조는 Perlmutter(1978)나 Burzio(1986)의 비대격 가설 (unaccusative Hypothesis)에 따라 아래의 (4a)과 같이 외부 논항(주격 명사구)은 비어 있고 두 개의 내부 논항(목적격 명사구와 처격 명사구)만이 동사구 내에 실현되는 구조로 도식화되며, ‘있다’ 동사는 (4b)와 같이 대상격과 처격 만을 자신의 논항으로 갖는 두 자리 서술어의 논항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⁷⁾

6) 소유 구문의 특징에 대하여 박양규(1975) 참조.

7) 「있다」에 대하여 「소유」나 「소재」의 의미를 갖는 별개의 동사로 분리하여 이들 의미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저 구조로 도식화할 수도 있으나 「소유」의 의미를 「소재」의 의미와 동일한 어휘 개념 구조로 도식화한 Jackendoff(1983)와 동일한 입

- (4) a. 있다 : [vp NP NP V]
 b. 있다 : < theme, locative >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의 구문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5a)에서와 같이 동사구 내부의 대상격 명사구가 동사구의 외부 논항인 주어 자리로 이동하여 문장의 주어로 실현되는 것으로 도식화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5b, c, d)의 문장들의 기저 구조는 (5a)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의 「있다」 구문이 (4a, b)와 같이 존재의 '있다' 구문과 동일한 어휘 개념 구조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기저구조는 존재 구문의 그것과는 다르게 도출된다. '있다' 구문의 외부 논항 자리는 (5a)에서와 같이 항상 동사부 내부의 대상격 명사구의 이동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 논항의 자리는 (6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있다」의 또 다른 내부 논항인 처격 명사구의 이동에 의해서 채워지기도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6a)와 같은데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6b, c, d)과 같은 문장들이 이러한 구문의 예들이다.⁸⁾

- (5) a. [_{IP} NP_i(theme) [_{vp} ei NP_i(locative) 있다]]
 b. 책이 책상 위에 있다.
 c. 내 책이 아버지께 있다.
 d. 아버지가 방안에 계시다.
 (6) a. [_{IP} NP_i(locative) [_{vp} NP_i(theme) ei 있다]]
 b. 철수에게 형이 있다.

장을 취하여 「있다」의 여러가지 의미에 대하여 동일한 기저구조를 상정한다. 참고로 Jackendoff(1983)는 'have'의 개념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have : [state BE (x, [place AT y])]

김영주(1990:40)에서도 「있다」 동사가 '소유'와 '소재'의 의미를 갖는 두 개의 어휘항(entry)을 가지나 이들은 동일한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를 가지며 어휘 개념 구조와 논항구조의 연계 방식(linking pattern)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8) 「소유」 구문에서의 처격 명사구의 주어 자리인 IP의 Spec 자리로의 이동 근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선경(1996) 참조.

- c. 이 책상에 서랍이 있다.
- d. 아버지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으시다.

이러한 소유 구문에서의 처격 도치 현상은 '있다' 구문들 중 소유 구문만이 갖는 통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주격 중출 현상도 이러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소유 구문에서 이러한 주격 중출 현상에 대하여 처격 명사구가 주격으로 실현되는 것을 주제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이들 명사구의 통사구조 상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다. 따라서 이들 명사구의 통사구조와 그 구조 내의 처격 명사구의 위치를 감안하여 소유 구문의 처격 명사구의 주격으로의 실현은 이들 명사구가 기저구조에서 주어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2.2. 소유 구문의 해석을 확정하여 주는 두번째 특징은 「속격 구성」의 허용 여부이다. 소재의 의미 해석을 받는 (8)의 문장들에서 처소의 명사구 (NP1)와 존재 대상의 명사구(NP2)는 'NP1의 NP2'와 같은 속격 구성을 이루지 못하는 반면 소유 구문은 (7)에서와 같이 두 명사구가 속격 구성을 이룸으로써 존재 대상과 그것의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 | | |
|---------------------|-----------|
| (7) a. 철수에게/가 돈이 있다 | 철수의 돈 |
| b. 영희에게/가 동생이 있다. | 영희의 동생 |
| c. 이 책상에/이 서랍이 있다. | 이 책상의 서랍 |
| d. 그의 말에/이 일관성이 있다. | 그의 말의 일관성 |
| (8) a. 책상에 책이 있다. | *책상의 책 |
| b. 서랍에 양말이 있다. | *서랍의 양말 |

9) 신선경(1996)에서는 주격 중출문을 이루는 「소유」 구문 'NP1이 NP2이 있다'에서 NP1은 동사구 내부에 있던 처격이 도치되어 주어 자리에 실현됨으로써 구조적 주격을 받아 실현된 주격으로 NP2의 주격은 자동사 구문에서 격을 배당받지 못한 명사구에 주어지는 무표격(default)의 실현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속격 구성의 조건은 소유 구문의 명사구가 갖는 의미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한정적 기술과 관련된 함수 관계와 관련하여 종류 개념(sortal concept)을 나타내는 명사와 관계 개념(relational concept)을 나타내는 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¹⁰⁾ 대부분의 명사들은 문장 내에서 쓰일 때 상황에 따라 종류명사와 관계명사 두 가지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아래의 (9)의 예에서 「책상」은 두 문장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 동일한 명사이다. 그러나 (9a)에서는 종류명사로 쓰인 반면 (9b)에서는 「나」와 소유 관계에 있는 관계명사로 쓰이고 있다. 이때 「책상」을 한 정해 주며 「책상」과의 소유 관계를 명시하는 명사구 「나의」는 머리명사인 「책상」의 논항¹¹⁾이 된다.

- (9) a. 이것이 책상이다.
 b. 이것이 나의 책상이다.

이러한 논항들 중에는 문장 내에서 명시되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장에 실현되지는 않으면서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추정되는 비 명시적 논항도 있다. 문장 내에 명시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명사의 시간, 공간적 위치나 머리명사와 관련된 일반적 지식 등을 나타내는 논항을 상황 논항(situational argument)이라 부르고 머리명사와 소유 관계를 갖거나 그것의 속성을 나타내는 논항을 대상 논항(object argument)이라고 부른다

10) 예를 들어 「여자」는 종류명사로서 HUMAN, FEMALE, ADULT와 같은 의미 자질로 분석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일항술어이다. 그러나 「아내」는 관계명사로서 기본적으로 「여자」와 동일한 의미자질들을 공유하지만 이뿐 아니라 「어떤 남자의 배우자」라는 의미를 필연적으로 갖게된다. 「아내」라는 명사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어떤 남자와의 결혼 관계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계 명사는 논리적으로 이항술어가 된다. 한정성과 명사의 함수 관계에 관한 논의는 Löbner(1985) 참조.

11) 여기서 논항이라는 것은 함수이론에서의 논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선택하는 자매요소인 주어나 목적어 따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명사를 나타내는 논항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여기서 쓰인 논항이란 한정적 기술의 머리명사가 한정성을 갖도록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의 내(의)적 요소이다. 논항이 되는 요소는 머리명사와 「소유관계」를 갖거나 또는 그것의 속성을 나타낸다. Löbner(1985), 김영철(1993) 참조.

(Fraurud (1990 : 412).

이상의 함수 관계 한정 기술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소유 구문에 실현되는 대상격과 처소격의 두 명사구들 사이에는 다른 구문에서 는 찾아 볼 수 없는 머리명사와 논항의 함수 관계가 전제됨을 알 수 있다. 즉 대상격의 명사구는 반드시 한정성(definiteness)을 갖는 명사구이어야 하며 그 명사구의 한정성은 문장 내에 실현된 처격 명사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처격 명사구는 머리명사와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대상 논항(object argument)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¹²⁾. 이러한 조건은 명사구가 표면에서 어떠한 격조사를 선택하여 실현되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한 의미 해석에 관련된 문제로 이들 구문의 명사구들 사이의 함수 관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이제까지 우리는 ‘있다’ 구문의 비대격성(unaccusativity)을 바탕으로 비대격 구문의 특성 때문에 소유구문의 심층구조에서는 빈 자리로 남아 있는 문장의 주어 자리 즉 IP의 명시소(Spec) 자리로 동사구 내부의 처격 명사구가 이동하여 구조적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다는 소유 구문에서의 처격 도치에 관해 생각해 보았으며, 이러한 처격 도치의 결과로 소유 구문에서의 주격증출 현상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소유 구문의 어휘 개념 구조와 처격 도치에 의해 유도되는 소유구문의 통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 소유 구문의 통사구조 >

소유구문은 (1)과 같은 심층구조에서 유도된 (2)와 같은 기저구조를 가져야 한다.

- (1) [IP e [vp NP(theme) NP(locative) 있다]]
- (2) [IP NPi(locative) [vp NP(theme) ei 있다]] (처격 도치)

한편, ‘있다’의 소유 구문으로의 해석의 기준을 ‘속격 구성’ 여부로 삼고

12) 한편, 같은 ‘있다’ 구문이라고 할지라도 「존재」 의미를 갖는 구문에서는 처격 명사구는 상황 논항의 성격을 떠면서 대상격 명사구의 공간적 위치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공식화하기 위하여 소유 구문에 실현되는 두 명사구인 대상격 명사구와 처격 명사구 사이의 함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소유 구문에서 '있다'의 '소유'의 의미는 '있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의미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있다' 구문에 나타나는 두 명사구 사이의 의미적 관계에서 추론되는 것이라 는 전 장의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소유 구문에 실현되는 대상격 명사구는 다른 성분에 의해 필연적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관계 명사의 성격을 가지며 처격 명사구는 이러한 관계 명사의 소유 관계를 명시해 주는 논항의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함으로써 소유 구문의 성립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소유 구문의 의미 조건 >

1. '있다' 구문의 대상격 명사구는 논항에 의해 한정성(definiteness)을 부여받는 관계명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2. 처격 명사구는 대상격 명사구를 머리명사로 하여 그것과의 '소유 관계'를 한 정해 주는 대상논항(object argument)이어야 한다.
- 단, 소유 구문은 반드시 이상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어떤 '있다'의 구문이 위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유 구문으로의 해석이 어렵게 되는데, 이는 '있다'의 존재 구문들에서도 대상격의 명사구는 한정성을 갖는 관계명사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 내의 처격명사구가 이들의 상황 논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 구문의 경우 이들 처격 명사구 논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황논항(situational argument)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상격과의 '소유관계'를 한정하여 주는 대상 논항이 되지는 못하므로 소유구문의 성립을 위해서는 두번째 조건도 동시에 만족될 때만 '있다' 구문은 소유 구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소유 구문의 통사구조와 소유 구문이 성립하기 위하여 만족되어야 하는 의미조건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유 구문의 유형들을 정리하고 이들 소유 구문에 적용되는 통사 의미적 제약들을 정리함으로써 소유 구문의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한다.

3. 소유 구문의 유형과 특징

3.1. 소유 구문은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소유(alienable posession) 구문과 양도할 수 없는 소유(inalienable posession) 구문으로 나뉜다¹³⁾. 「양도할 수 있는 소유」는 소유와 소유 대상이 서로 별개의 개체로 분리되는 별개의 대상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한 소유주와 그것의 소유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유 구문을 말한다. Jackendoff (1983:191)에 따르면 이는 다시 소유주와 소유 대상 간에 성립하는 소유 관계의 긴밀성의 정도에 따라 소유권(ownership)을 나타내는 구문과 임시 관리권(temporary control)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때 임시 관리권은 「보관」, 「명의(名義)」, 또는 「책임의 소재」 따위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0) 소유권(ownership)의 소유 의미

- a. 동생이 586컴퓨터가 있다.
- b. 어머님이 돈이 있으시다.
- c. 철수가 물려 받은 땅이 있다.

(11) 임시 관리권(temporary control)의 소유 의미

- a. 철수에게 내 책이 있다.
- b. 작은아버지께 아버지의 땅 문서가 있다.
- c. 시골 고모님께 우리 딸아이가 있다.

위의 (10)과 (11)은 모두 양도할 수 있는 소유의 의미와 관련되는 문장들로 (10)은 소유권에 관한 의미를, (11)은 임시 관리권에 관한 의미를 갖는 문장들이다. 이를 두 문장은 소유주와 소유 대상 간의 소유 관계에 있어서의 긴밀성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10)의 문장에서 두 명사구 사이의 관계는 (11)의 그것에 비해 훨씬 긴밀하여 의미적으로 소유 대상의 소유주에 대한 귀속이 필연적으로 전제되는데 비해 (11)의 문장에서는 귀속의 관계가

13) Lyons(1969), 박양규(1972), Jackendoff(1983) 등 참조.

전제되지 않으며 두 명사구 사이의 관계는 임시적이고 수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임시 관리권의 경우 형태 통사적 특성에 있어서 소유 구문의 성격보다는 소재 구문의 성격을 더 많이 갖는 구문으로 처격 명사구가 유정성의 의미 자질을 갖는다는 면에서 그리고 이러한 유정성이 존재 대상에 대한 능동적 처소, 더 나아가 보관이나 관리의 의미를 함의하게 됨으로써 소유 의미와 관련된 해석을 받기는 하지만 이들 임시 관리권의 구문들은 일반적 의미의 소유 구문과는 통사적, 의미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아래의 (1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앞 장에서 제시된 소유 구문의 특징인 주격 중출문의 형성이나 속격 구성이 이들 구문에서는 불가능하다.

(12) a. *철수가 내 책이 있다.

a'. *철수의 내 책

b.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의 땅 문서가 있다.

b'. *작은 아버지의 아버지 땅 문서

c. *시골 고모님이 우리 딸아이가 있다.

c'. *시골 고모님의 우리 딸 아이

(12a, b, c)의 예에서는 임시 관리의 구문에서 주격 중출이 불가능한 것을, (12a', b', c')에서는 속격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각각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시 관리권의 의미를 갖는 이들 구문을 소유 구문으로 분류하여 다루는 것은 의미적 연관성만을 고려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통사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양도할 수 있는 소유 구문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문장들만을 포함시키고 임시관리의 의미를 갖는 문장들은 의미적으로는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의 중간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통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재 구문의 성격을 갖는 것이 확실하므로 소재 구문의 하위 부류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3.2. 양도할 수 있는 소유 구문은 소유주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대하여 이를 명사구가 [+human]의 자질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는 위의 (10)의 문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사구 자리에 [-human]의 자질을 갖는 명사구가 실현된 (13)의 문장들은 모두 소유의 의미가 아닌 소재의 의미로 해석되

며 이들은 소유의 구문에서와 같이 표면 구조에서 주격으로 실현되지도 못하여 주격 중출문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소유 구문의 실현에 있어서 쳐격 명사구의 [+human] 자질이 소유 의미 해석에 있어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3) a. 우리 집에/*이] 586컴퓨터가 있다.
- b. 이 지갑에/*이 돈이 있다.
- c. 우리 마을에/*이 물려받은 땅이 꽤 많이 있다.

따라서 양도할 수 있는 소유 구문의 소유주 명사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선택 제약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양도할 수 있는 소유의 의미에서 전제되는 소유권의 개념에 소유 대상에 대한 권한의 유지, 행사를 위하여 [+human]이라는 의미 자질을 전제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유 구문의 명사구의 선택 제약>

양도할 수 있는 소유 구문에서 소유주나 관리의 주체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human]의 자질을 갖는다.

양도할 수 없는 소유(inalienable possession)는 소유주와 소유 대상의 의미적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소유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래의 (14)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체」, 「전체와 부분」, 「친족 관계」 「개체와 속성」 따위의 의미들을 포함한다.

- | | |
|---------------------------------|-------------|
| (14) a. 호랑이에게/가 꼬리가 있다. | (전체와 부분-신체) |
| b. 새에게/가 날개가 있다. | (전체와 부분-신체) |
| c. 새로 나온 냉장고에/가 얼음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 | (전체와 부분) |
| d. 그 연필에/이 지우개가 있다. | (전체와 부분) |
| e. 김 박사에게/가 아들이 하나 있다. | (친족 관계) |
| f. 영수에게/가 누나가 있다. | (친족 관계) |
| g. 사람에게/이 이성이 있다. | (개체와 속성) |
| h. 철수에게/가 통솔력이 있다. | (개체와 속성) |

i. 이 옷감에/이 신축성이 있다.

(개체와 속성)

이들 위의 (14)의 문장들에 나타나는 소유주와 소유 대상 간의 관계는 양도할 수 있는 소유 의미에서와 같이 권리의 성립과 유지라는 인위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본래적으로 주어진 분리 불가능한 귀속 관계이므로 소유에 대한 권리의 파기나 양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구문은 소유주의 소유 의지나 관리 능력 따위의 의미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소유주 명사구가 유정성을 갖는 명사구이어야 한다는 명사구 선택 제약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 불가능한 귀속관계를 우리는 「양도할 수 없는 소유」로 정의하고 소유 구문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있다」의 소유 구문에 나타나는 「소유」 의미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비소유 관계에 있다가 그 관계를 소유의 관계로 바꾸는 능동적 「소유 절차」와 관련된 의미라기보다는 한 대상과 또 다른 대상 간의 귀속적 긴밀성을 문제 삼는 「소유 상태」와 관련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는 소유의 경우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여 소유주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유정성 자체보다는 「소유주와 소유 대상 사이의 귀속 관계의 긴밀성」이 의미 해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소유 구문의 소유주 명사구가 [+human]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선택 제약은 이와 같은 귀속 관계의 긴밀성이 보장되는 한 양도할 수 없는 소유의 구문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3.3. 소유 구문은 문장의 명사구들의 실현 위치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15) a. 동생이/에게 586컴퓨터가 있다.

- a'. 586 컴퓨터가 동생에게/*가 있다.
- b. 어머니가/에게 돈이 있으시다.
- b'. 돈이 어머니에게/*가 있다
- c. 아버지가/께 물려 받은 땅이 있으시다.
- c'. ?*물려받은 땅이 아버지께/*가 있다

(15)의 예들은 양도할 수 있는 소유 구문으로 이들 소유 구문에서 소유주 명사구는 (11a,b,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 대상의 선행 위치에 자리하며

처격 조사는 물론 주격 조사도 취할 수 있어 중출문을 이룬다. 그러나 이들 소유권의 의미를 나타내는 소유 구문이 문장의 기저 구조는 동일한 문장이라도 (15a'b'c')와 같이 기저의 처소격인 소유주 명사구가 소유 대상 명사구에 후행하여 나타날 경우 이들 명사구는 주격 조사와는 공기하지 못하고 처소격(여격) 조사와만 공기하며 의미도 소유주와 소유 대상 간의 소유권에 관한 의미보다는 대상의 소재(location)나 임시 관리권에 관한 의미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의미를 갖는 소유 구문에 대하여 우리는 소유주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소유 대상 명사구에 선행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위치 제약을 가정할 수 있다.

<소유 구문의 명사구 위치 제약>

소유 구문의 소유주 명사구는 반드시 소유 대상 명사구에 선행한다.

한편, 존재 구문에서 소유주와 대응되는 처격 명사구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의미의 변화없이 모든 위치에서 실현될 수 있음은 다음의 (16)의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 관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17)의 예들을 통해 임시 관리권의 의미를 갖는 문장들도 소유의 구문과는 달리 이러한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6) a. 책들이 책상 위에 있다.

a'. 책상 위에 책이 있다.

b. 어릴 때 살던 집이 지금도 고향에 그대로 있다.

b'. 지금도 고향에 어릴 때 살던 집이 그대로 있다.

- (17) a. 철수에게 내가 빌려준 책이 있다.

a'. 내가 빌려준 책이 철수에게 있다.

b. 작은아버지께 우리집 땅 문서가 있다.

b'. 우리집 땅문서가 작은아버지께 있다.

위의 임시 관리권을 나타내는 (17a, b)의 문장에서 관리자(controller)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소유 대상 명사구에 선행하여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7a', b')에서와 같이 이들의 후행 위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실현 위치에 대하여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문에서는 소유 구문에서와는 달리 문두에 위치하는 처격 명사구가 주격조사를 취하지 못한다. 한편, 양도할 수 없는 소유 구문의 소유주 명사구도 양도할 수 있는 소유권 구문의 소유주와 동일한 위치 제약을 받는다.

- (18) a. *꼬리가 호랑이에게 있다. (전체와 부분-신체)
- b. *날개가 새에게 있다. (전체와 부분-신체)
- c. 냉수와 열음이 나오는 구멍이 새로 나온 냉장고에 있다. (전체와 부분)
- d. 지우개가 그 연필에 있다. (전체와 부분)
- e. ?아들이 김 박사에게 있다. (친족 관계)
- f. ?누나가 영수에게 있다. (친족 관계)
- g. *이성이 사람이에게 있다. (개체와 속성)
- h. *?통솔력이 철수에게 있다. (개체와 속성)
- i. *?신축성이 이 옷감에 있다. (개체와 속성)

위의 (18)의 문장들은 소유주의 명사구가 문두에 실현된 (14)의 문장들에서 이들 소유주 명사구들의 위치를 동사구의 앞 위치로 후치시킨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 문장들은 (18)에서 볼 수 있듯이 (14)의 문장들과 동일한 해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문장은 비문을 이루거나 혹은 소유의 의미가 아닌 소재의 의미로 해석된다. (18a, b)와 같이 신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소유 대상이 문두에 실현될 경우 이들은 의미적으로 비문을 이룬다. 이들 문장에서 ‘꼬리’나 ‘날개’는 (14a, b)에서처럼 ‘호랑이’의 ‘꼬리’나 ‘새의 날개’로만 해석되지 않으며 따라서 ‘꼬리’와 ‘날개’는 ‘호랑이’나 ‘새’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들 문장에서 각 명사구들이 비분리의 관계가 아닌 분리 가능한 개체로 해석될 경우 이들은 양도할 수 있는 소유의 해석이나 소재의 해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유주가 되는 ‘호랑이’나 ‘새’는 [-human]의 자질을 갖는 명사구이므로 양도할 수 있는 소유의 소유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의 해석은 불

가능하게 되며 소재 의미로의 해석만이 가능하게 되는데 ‘호랑이’나 ‘새’는 처격 명사구가 갖는 무정성이나 장소성과는 동떨어진 것이므로 소재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없게 되어 의미적으로 비문을 이루게 된다. 한편, (18c,d)에서와 같이 물리적 개체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갖는 경우는 부분의 의미를 갖는 존재 대상에 비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의미적으로 무정성을 갖고 또한 물리적 공간이 존재 대상보다는 큰 개체이므로 처소로서의 해석이 가능하여 소재의 의미로 해석된다¹⁴⁾. 그러나 이를 문장에서도 역시 소유의 의미로 해석되지는 못한다. (18'e, f)와 같이 친족 관계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소유주로 해석되어야 할 처격 명사구는 유정성을 갖는 개체 자신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개체의 영향권이 미치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존재 대상의 존재 위치나 관리 혹은 통제자로 해석되어 이를 문장 역시 친족 관계라는 소유의 하위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소재의 의미로의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18g, h, i)와 같이 개체와 속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 처격 명사구의 소유주로의 해석은 물론 구체적인 장소성을 전제로 하는 소재로의 해석마저 불가능하므로 소재의 의미 해석도 받지 못하고 비문을 이룬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 우리는 양도할 수 없는 소유 구문에서도 소유 구문의 명사구 위치 제약이 유효성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사구 위치 제약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소유 구문의 통사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유주로 해석되는 처격 명사구의 문장 내에서의 통사적 위치가 문장의 주어 자리 즉 IP의 명시소 자리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격 명사구는 이 자리에서 통사적으로 주격을 얻게 되어 주격 중출문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유주 명사구의 주격이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주격임은 아래의 (18')과 같은 문장들이 비문을 이룬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18') a. ?*꼬리가 호랑이간 있다. (전체와 부분-신체)
 b. ?*날개가 새간 있다. (전체와 부분-신체)
 c. *냉수와 얼음이 나오는 구멍이 새로 나온 냉장고가 있다.
 (전체와 부분)

14) 「소재」의 구문에서 처격 명사구의 의미 제약에 관한 것은 신선경(1996) 참조.

- d. *지우개가 그 연필이 있다. (전체와 부분)
- e. *아들이 김 박사가 있다. (친족 관계)
- f. *누나가 영수가 있다. (친족 관계)
- g. *이성이 사람이 있다. (개체와 속성)
- h. *통솔력이 철수가 있다. (개체와 속성)
- i. *신축성이 이 옷감이 있다. (개체와 속성)

(18')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유주 해석을 받는 처격 명사구가 문두의 위치가 아닌 서술어의 앞 위치에서 실현될 때, 주격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는 소유 구문에서 소유주 명사구가 주격으로 실현되는 것은 주제화나 다른 화용론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통사적 위치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주격이라는 것을 보이는 좋은 예이다. 이들 처격이 주어의 위치로 이동하지 않고 동사구 내부에 있으므로 주격을 배당받지 못하고 고유의 격인 처격으로 실현되며 소유구문으로의 해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소유구문의 소유주 명사구에 실현된 주격이 구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주제화 등의 화용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엄격한 위치상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며 따라서 (18')가 비문이 되는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예들에서 우리가 앞서 가정했던 <명사구 위치제약>이 모든 소유구문에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제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가정된 <명사구의 위치 제약>은 (19)과 같은 문장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갖지 못한다. (19)의 문장들에서 존재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위의 문장들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과 결합하여 서술어의 앞에 실현되는 대신 주체격 조사 '-은/는'과 결합하여 문두에 실현되고 문장의 문두에 실현되어야 하는 처격 명사구는 서술어의 앞에 실현되면서도 소유 구문의 해석을 받고 있다.

- (19) a. 꼬리는 호랑이에게/가 있다. (전체와 부분-신체)
- b. 날개는 새에게/가 있다. (전체와 부분-신체)
- c. 얼음이 나오는 구멍은 새로 나온 냉장고에/가 있다. (전체와 부분)

- | | |
|---------------------|----------|
| d. 지우개는 그 연필에/이 있다. | (전체와 부분) |
| e. 아들은 김 박사에/가 있다. | (친족 관계) |
| f. 누나는 영수에/가 있다. | (친족 관계) |
| g. 이성은 사람에게/이 있다. | (개체와 속성) |
| h. 통솔력은 철수?에게/가 있다. | (개체와 속성) |
| i. 신축성은 이 옷감에/이 있다. | (개체와 속성) |

위의 (19)의 예들을 고려할 때, 앞에서 가정하였던 소유 구문에서의 명사구 위치 제약이 온전한 유효성을 갖기 힘든 것으로 보이며 소유 구문에서 명사구들의 문장 내의 실현은 표면 구조에 나타나는 명사들의 실현 순서와만 관련된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18)과 (19)의 문장들은 표면적인 어순만을 고려할 때 각각 소유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선택한 조사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18)와 (18')의 문장들에서 이들 명사구는 주격조사를 선택하고 있는 반면, (19)에서는 소위 주제격 조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사구 위치 제약을 위배하면서도 (19)가 갖게되는 문법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신선경(1996)은 (19)의 문장들의 표면구조가 (18)(18')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통사구조는 서로 다른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18)의 통사구조는 아래의 (20)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즉 문두에 실현된 소유 대상 명사구가 실현된 위치는 문장의 주어 위치 즉 IP의 명시소(Spec) 자리로 이는 소유 구문에서 반드시 처격 명사구에 의해 채워져야 할 자리인데 이들 대상격의 명사구가 대신 차지하게 됨으로 (18)의 문장들은 비문이 된다.

- (20) 18a. *[_{[IP꼬리]gi} [_[vp ei 호랑이]에게 있다]]
 (21) 19a. [_{[IP꼬리]는j} [_[IP호랑이]에게/가]i [_{[vp ei ej} 있다]]]

반면, (19)의 문장들은 (21)과 같은 기저구조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어의 자리는 다른 소유 구문에서와 같이 처격 명사구(소유주 명사구)에 의해 채워지고 이들 소유 대상의 명사구들은 IP의 부가어 자리인 주제어의 자리에 실현된다. 따라서 (18a)와 (19a)의 문장에서 소유 대상 명사구의 표면적 위치는 문두의 위치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기저구조에서의 이들의

통사구조 상의 위치는 IP의 명시소의 자리와 IP의 부가어 자리로 각각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의 문장들은 그들의 표면구조 상의 어순에 따라 (18)의 문장과 동일한 구조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위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소유구문의 <명사구 위치 제약>도 이러한 소유구문의 통사구조를 고려하여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명사구 위치 제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에 앞서 (14)나 (15)와 같은 소유 구문에서 동사구 내부에 있던 두 명사구 즉 대상격 명사구와 처격 명사구 중에서 처격 명사구가 주어의 위치로 이동하여 사실상 대상격의 명사구에 선행하여 실현되는 것과 (19)에서처럼 대상격의 명사구가 주제격의 '-은/는'과 결합할 경우 문두에 실현되어도 적격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론적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에 대한 의미론적 원인은 앞서 2장에서 정리하였던 <소유구문의 의미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 조건에 따르면 '있다' 구문의 대상격 명사구는 논항에 의해 한정성(definiteness)을 부여받는 관계명사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처격 명사구는 대상격 명사구를 머리명사로 하여 그것과의 소유 관계를 한정해 주는 대상논항(object Argument)이어야 한다. 이러한 소유구문의 조건은 문장 내에서 처격명사구가 대상격 명사구에 선행함으로써 대상격 명사구에 한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좀더 확고히 하고자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대상격 명사구가 주제격 조사를 택하여 문두에 실현된 (19)의 경우 대상격 명사구의 한정성은 주제격 조사 '-는'에 의하여 이미 명시되었으므로¹⁵⁾ 선행 요소에 의한 한정성의 명시가 불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한정성 조건이 만족되므로 이들 문장은 적격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볼 때, 우리는 앞서 가정한 <소유구문의 위치 제약>은 2장에서 논의한 소유구문의 통사구조나 소유구문의 의미 조건에

15) 이정민(1992)에서는 영어의 전형적 한정 기술(definite description)이 '정관사+명사'의 구성이나 국어에는 정관사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는 대표적 성분으로 주제격 조사 '-은/는'를 들고 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선비가/*는 살고 있었다'와 같은 예에서 비한정적 명사구인 '한 선비'는 주제격조사 '-는'과는 결합할 수 없음이 주제격 조사의 한정사로서의 용법을 나타내는 한 예가 된다. 김영철(1993)도 '-은/는'이 주제(화제)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한정 명사구를 요구함을 지적하였다.

서 비롯된 결과일 뿐 별도의 제약으로서 형식화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마지막으로, 소유 구문에서 소유 대상 명사구는 소유 대명사나 기타 소유주를 나타내는 수식구의 수식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 소유주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무표적(unmarked) 성격을 띤다. 이는 소유 대상 명사구가 소유주를 명시하는 소유 대명사 없이 쓰인 (22)의 문장은 소유 구문의 해석을 받는 반면 (22')에서와 같이 소유주의 수식을 받을 경우 소유의 의미보다는 임시 관리권이나 소재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2) a. 철수에게 돈이 있다.
- b. 시골 고모님께 딸아이가 있다.
- (22') a. 철수에게 내 돈이 있다.
- b. 시골 고모님께 우리 딸아이가 있다.

이와 같이 명사구의 소유 관계가 무표적으로 표시될 경우 선행하는 명사구가 의미적으로 소유 대상의 소유주로 해석되어 소유 대상 명사구에 대한 소유의 해석은 이를 선행 명사구에 의해 명시된다. 이는 2장에서 정리된 소유구문의 의미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소유 대상 명사구가 한정성을 갖되 이들의 한정성은 문장 내에 함께 실현된 처격 명사구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조건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소유 대상의 명사구가 문장의 소유주 이외의 다른 소유 대명사의 수식을 받게 될 경우 대상 명사구와 처격 명사구 사이의 소유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머리명사와 논항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유구문의 의미조건>을 위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 대상 명사구의 소유 관계 한정에 대한 유효성의 효과는 대상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문장에 나타난 소유주와 일치하는 (23)과 같은 문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23) a. 어머니께 어머니 돈이 있다.
- b. 철수에게 철수 책이 있다.
- c. 작은아버지께 작은 아버지 땅 문서가 있다.

d. 시끌 고모님께 고모님의 딸이 있다.

(2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유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소유주를 명시하는 수식구가 쓰일 경우, 소유주가 문장에 명시된 소유주와 일치함으로써 소유주의 소유 대상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해석은 물론 이를 소유 대상의 현재적 위치나 소유 대상의 명목상의 소유자나 관리자 따위와 같은 임시 관리권의 해석도 함께 받는다. 따라서 문장 내의 소유 대상이 소유 관계에 대하여 무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소유자와 문장 주어와의 일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 대상 명사구에 대한 무표성 조건은 (24)의 「양도할 수 없는 소유」를 나타내는 구문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 | |
|-------------------------------|-------------|
| (24) a. ?호랑이에게/*가 호랑이 꼬리가 있다. | (전체와 부분-신체) |
| b. ?새에게/*가 새의 날개가 있다. | (전체와 부분-신체) |
| c. ?그 책상에/*이 그 책상의 서랍이 있다. | (전체와 부분) |
| d. ?그 연필에/*이 그 연필의 지우개가 있다. | (전체와 부분) |
| e. ?김 박사에게/*가 김박사의 아들이 하나 있다. | (친족 관계) |
| f. ?영수에게/*가 영수의 누나가 있다. | (친족 관계) |
| g. *사람에게/*이 사람의 이성이 있다. | (대상과 속성) |
| h. *철수에게/*가 철수의 통솔력이 있다. | (대상과 속성) |
| i. *이 옷감은 이 옷감의 신축성이 있다. | (대상과 속성) |

위의 (24) 문장에서와 같이 소유 대상 명사구가 소유주를 명시하는 수식구의 수식을 받을 경우 그 수식구가 문장 내의 소유주 명사구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들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23)과 (24)의 문장들에서 무표성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소유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의 소유 관계를 명시하는 수식구는 이것이 문장 내 소유주 명사구와 일치할 경우 문장 내에서 잉여적인 요소가 되며 잉여적 요소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쓰임으로써 어색한 문장을 만들거나 혹은 소유 관계에 관한 보다 유표적인 해석을 유발하게 된다. 즉 유표적 해석이라 함은 소유 대상

에 대한 소유 관계가 머리명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식구에 의해 한정됨으로써 한정성의 조건이 만족되므로 처격 명사구는 더 이상 머리명사의 논항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명사구는 소유주 해석보다는 처소나 책임의 소재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유 대상의 이와 같은 무표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유 대상 명사구의 무표성 조건 >

소유 구문에서 소유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소유주를 명시하는 수식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소유 관계에 관한 한 무표적(unmarked)이어야 한다.

4. 소유 구문의 부정

‘있다’ 구문의 부정형식으로는 단형 부정형의 ‘안 있다’의 형태와 장형 부정형인 ‘있지 않다’ 그리고 ‘없다’의 세 형식이 있다. 소유 구문은 부정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안 있다’ ‘있지 않다’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없다’의 형식만을 취한다. 이는 소유 구문과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 「소재」 구문의 부정형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 (25) a. *철수는 땅이 안 있다.
b. *철수는 땅이 있지 않다.
c. 철수는 땅이 없다.
- (26) a. *그 에어콘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안 있다
b. *그 에어콘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지 않다.
c. 그 에어콘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없다.

위의 (25)와 (26)은 각각 「양도할 수 있는 소유」 구문과 「양도할 수 없는 소유」 구문의 부정형의 예들이다. 위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소유 구문들은 ‘없다’의 형식만을 부정형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는 존재 구문의 「존재론적 존재」 구문과 「유형론적 존재」 구문의 부정형 선택과 동일한 양

상을 보이는 것이다¹⁶⁾. 「있다」 구문이 나타내는 소유 관계는 소유주와 소유 대상의 그리고 소유의 과정 따위의 다각적인 의미 성분들이 관여하는 소유 관계라기보다는 소유주와 소유 대상 간의 소유 관계 자체만이 문제시되는 구문이므로 소유 대상의 존재 여부 자체가 소유 관계를 규정짓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유주와 소유 대상의 소유 관계는 소유 대상의 존재성 부정을 통해서만 부정되는 것이다.

- (27) a. 철수는 땅을 안 가지고 있다.
 b. 철수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있다」와 유사하게 소유의 의미를 갖는 「가지다」 구문의 경우 「안 갖다」와 「갖지 않다」의 형식을 취하는데 (27)의 예에서 「안 갖고 있다」 혹은 「갖고 있지 않다」 따위의 부정은 「철수에게 땅이 없음」 소유주인 「철수」와 소유 대상이 「땅」과의 사이의 소유 관계의 부재 자체뿐만 아니라 「철수가 아닌 누군가가 땅을 소유한다」의 의미나 「철수는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유물을 소유 한다」의 의미까지도 가져 중의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5)의 소유 구문의 경우 부정소의 작용역¹⁷⁾이 하나의 명사구에만 미쳐 「철수가 아닌 다른 소유주」나 「땅이 아닌 다른 소유물」과 같이 부분적 부정의 의미는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부정 의미 해석을 통해 우리는 「있다」의 소유 구문에서 소유주 명사구와 소유 대상의 명사구가 부정의 작용역에 대하여 하나의 고도(island)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

16) 다음 예들은 각각 「있다」의 구문들 중 「존재론적 존재」와 「유형론적 존재」 구문의 부정형의 예들이다. 이 두 구문에서 세 가지의 부정형 중 오직 「없다」의 형식 만이 허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1) a. *오리너구리라는 동물은 안 있다.
 b. *오리너구리라는 동물은 있지 않다.
 c. 오리너구리라는 동물은 없다.
 (2) a. *길집승으로는/에는 고래나 상어 따위가 안 있다.
 b. *길집승으로는/에는 고래나 상어 따위가 있지 않다.
 c. ?길집승으로는/에는 고래나 상어 따위가 없다.

17) 논리형식부에서의 부정소의 작용역에 대한 논의는 신선경(1995) 참조.

한 고도 효과는 단지 고도 내부의 성분이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성분이 내부로 이동하거나 내부의 성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는 장벽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고도의 효과는 부정소의 작용역의 범위에 있어서도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장벽 효과로 인해 ‘안 있다’와 ‘있지 않다’의 부정소들은 이들 명사구가 이루는 고도 안으로 자신의 작용역을 미칠 수가 없게 되며 (25a, b)의 부정형들은 고도 내부의 성분인 소유주 명사구를 부정하는 ‘철수가 아닌 아닌 영수에게 땅이 있다’라는 의미나 고도 내부의 소유 대상 명사구를 부정하여 ‘철수에게는 땅이 아닌 돈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단지 소유주 명사구와 소유 대상 명사구가 하나의 단위로서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유의 ‘있다’ 구문에서의 부정 의미는 소유 대상과 소유주의 관계의 자체에 대한 부정 의미만이 허용되게 됨으로 ‘없다’의 부정형만이 소유 구문의 부정형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5. 맷는말

이상에서 우리는 ‘있다’ 구문의 한 하위 부류인 소유 구문의 통사와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는 ‘있다’ 구문의 소유 의미를 ‘있다’ 자체의 하나의 독립된 하위 의미로 보기보다는 ‘X가 Y에 있다’라는 ‘있다’의 존재 의미에서 파생되는 해석 상의 차이로 보았다. ‘있다’ 동사의 정보 취약성 (informational lightness)과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명사구들 간의 의미적 관계에 의해 파생되는 의미라는 것이다. 문장 내에 실현되는 두 명사구 즉 처격과 대상격의 명사구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소유 구문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들이 갖는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관계 의미가 소유구문으로 하여금 다른 ‘있다’의 구문들과는 다른 통사구조상의 특징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2장에서 우리는 ‘있다’ 구문의 비대격성과 명사구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소유구문의 통사구조를 아래의 1.와 같이 도식화하였으며 소

유구문의 명사구의 함수 관계를 고려하여 2.와 같이 소유 구문의 의미조건을 정리하였다.

1. < 소유 구문의 통사구조 >

소유구문은 (1)과 같은 심층구조에서 유도된 (2)와 같은 기저구조를 가져야 한다.

- (1) [IP e [vp NP(theme) NP(locative) 있다]]
- (2) [IP NP(locative) [vp NP(theme) ei 있다]] (처격 도치)

2. < 소유 구문의 의미 조건 >

- (1) '있다' 구문의 대상격 명사구는 논항에 의해 한정성(definiteness)을 부여받는 관계명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 (2) 처격 명사구는 대상격 명사구를 머리명사로 하여 그것과의 '소유 관계'를 한정해 주는 대상 논항(object argument)이어야 한다. 단, 소유 구문은 반드시 이상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한편, 3장에서는 이러한 소유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유 구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소유구문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각 명사구가 갖는 문법적 특성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들이 갖는 대부분의 특성들은 2장에서 정리한 소유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를 각 유형의 소유 구문들은 동일한 통사구조와 의미조건의 적용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유구문의 부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소유구문이 '안 있다' '있지 않다' '없다'라는 세 가지 부정형 중 '없다'만을 자신의 부정형으로 선택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부정의 형식은 소유구문에서 소유주 명사구와 소유 대상 명사구 사이의 의미적 긴밀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하나의 고도(island)를 이루어 부정의 작용역이 고도 내부의 명사구에 개별적으로 미칠 수 없도록 방벽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고도의 효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의 형식들 중 소유관계의 유무만 문제삼는 '없다'라는 부정 형식만이 소유구문의 부정 형식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 고석주(1996), “‘있다’ 구문에 대한 연구”, 남기심 엮음『국어문법의 탐구 III -국어 통사론의 문제와 전망』, 태학사,
- 김영주(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Doctori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김영철(1993), 『한정성에 관한 연구 — Lobner의 함수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심 · 조은(1993), “제한 소절 논항구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 박양규(1972), 『국어 처격에 대한 연구』, 『국어 연구』 27.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 서정수(1991), “풀이말 ‘있/계시다’에 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 나무.
- 신선경(1995), “부정 해석과 부정소 상승에 관하여”, 『한일어학논총』(이종철 선생 회갑기념 논총).
- 신선경(1996), “비대격 구문의 처격 도치와 소유 구문의 주격 중출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어학연구회 발표요지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초점”, 『국어학』 22.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박이정.
- De Jong, F.(1997), “The Compositional Nature of (In)definiteness”, in Reuland & Meulen eds. 270-285.
- Fraurud, F.(1990), “Definiteness and the Processing of Noun Phrase in Natural Discourse”, *Journal of Semantics*, 7-4, Oxford University Press.
- Hoekstra,T. & R. Mulder(1990), “Unergatives as Copular Verb : locational & existential predication”, *The Linguistic Review* 7.
- Huang James, C-T.(1987), “Existential Sentences in Chinese and (In)definiteness”, in Reuland & Meulen eds. 226-253.
- Jackendoff(1983), *Semantics and Cognition*, MIT Press,Cambridge,MA.
- Jespersen,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George Allen & Unwin,London.
- Kimball, J.P (1973), “The grammar of existence”, *CLS* 19.

- Kuno, S.(1971), "The Position of Locatives in Existential Sentence", *Linguistic Inquiry* 2.
- Levin, B & Rappaport, M. H.(1995), *Unaccusativity : At the Syntax Lexical Semantics Interface*, The MIT Press.
- Langacker,R.W.(1987),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Lmsden Michael(1988), *Exsistentia Sentences - their structure and meaning*, Croom helm, Sondon, New York, Sydney.
- Löbner, S.(1985) "Definites", *Journal of Semantics* 4. 279-326.
- Milsark, G.(1974), *Existential Sentence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Prince, E.F.(1978), "On the Function of Existential Presupposition in Discourse", *CLS* 14, pp362-76.
- Rando, E. & Napoli, D.J.(1978), "Definiteness in There-sentence", *Language* 54 300-313.
- Reuland & Meulen eds.(1987), *The Representation of (In)definitenes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